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과 커플 관계만족의 관계*

조 영 주[†]

한경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 및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커플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101쌍의 미혼 커플과 부부에게서 수집한 설문 자료를 상관분석, 경로분석, Sobel test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을 때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과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 모두 관계만족이 높았다. 둘째,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공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지각의 유사성 편향), 나아가서 관계만족이 높았다. 셋째, 파트너가 공감을 많이 제공할수록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도 높은 수준의 공감을 지각하였고(지각의 정확성), 이를 통해서 관계만족이 높았다. 넷째, 남성이 제공했다고 보고하는 공감에 비해서 여성 파트너는 공감을 더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였고(지각의 지향성 부정편향), 남녀 모두 파트너가 공감을 제공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 때 관계 만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상담 실체에 대한 의의 및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커플 관계만족, 지각의 정확성, 지각의 편향, 성차

*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19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 031-670-5414, E-mail : yjcho@hknu.ac.kr

공감은 만족스러운 커플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Cramer, & Jowett, 2010; Johnson, 2004). 커플 관계에서 공감 수준이 낮을 때에는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아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오해와 관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공감 수준이 높을 때는 파트너의 생각, 감정, 욕구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물질적, 정서적으로 적절한 지지를 주고받으며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부와 미혼 커플을 포함하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커플’을, 배우자와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여자친구를 포함하는 용어로 ‘파트너’를 사용하고자 한다.

실제 상담 장면에서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커플상담이나 집단상담은 공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관계만족을 높이고자 한다. 정서중심 커플치료에서는 애착욕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파트너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David, 2015; Greenberg, & Johnson, 1988). 또한 공감훈련을 포함하는 집단상담은 미혼커플, 예비부부 및 부부의 공감수준과 관계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숙, 이은정, 2011; 박남숙, 연문희, 2002; 정여주, 2012). 이와 같이 공감은 상담 개입을 통하여 변화되고 증진되는 특성으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커플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공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일반적인 공감능력과는 구분되는 커플 관계 내에서의 공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이주열, 이영호,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Crenshaw, Leon, & Baucom; 2019; Leuchtmann, Horn, Randall, Kuhn, & Bodenmann, 2019; Péroquin, & Lafontaine, 2010). 커플의 공감 훈련에 대한 근거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플 공감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연구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구분해서 연구하였는데(이주열, 이영호,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Cramer, & Jowett, 2010; Lemay, Clark, & Feeney, 2007), 커플 관계에서 파트너를 공감한다고 해서 파트너가 이를 그대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커플 관계에서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지각하는지, 더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지, 혹은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이 자신의 공감수준과 유사하게 편향되게 지각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Barrett-Lennard, 1981; Rogers, 1961).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공감하는 것과 함께 공감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공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각된 공감은 상대방이 경청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준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방과 연결된 느낌으로 경험될 수 있다(Barrett-Lennard, 1981). 이와 같이 공감은 단일 차원의 현상이 아니라 정서, 인지, 의사소통 등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다(박성희,

2017). Davis(1983)는 공감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면서 공감능력에는 타인의 관점에 몰입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공감과 고통을 느끼는 타인에게 관심과 연민을 갖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공감은 특성 공감과 상태 공감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박성희, 2017), 특성 공감은 공감능력과 같이 안정적인 기질과 성격을 말하며 상태 공감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감을 말한다. 상태 공감과 관련하여, Crenshaw et al.(2019)은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공감의 정확성이 가장 높고, 각성 수준이 낮거나 높을 때에는 공감의 정확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공감은 상호적인 과정으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주고받지만, 연구자들은 이들과 구분해서 커플의 공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주열, 이영호,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Long, & Andrews, 1990; Péloquin, & Lafontaine, 2010). 우선 커플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공감 수준이 높고 일반적인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관여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관계에서 활용하는 공감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Péloquin & Lafontaine, 2010).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이주열과 이영호(2017)는 일반적 공감은 커플의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이 커플 관계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커플의 상호작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감이 아닌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커플 관계에서의 공감은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공감의 정도를 말한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커플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커플의 관계만족에서 중요한 요인이다(Cramer, & Jowett, 2010; Johnson, 2004). Wei, Lano, Ku와 Shatter(2011)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파트너를 공감할수록 파트너에 대한 이해의 폭과 정서적 유대가 확대 심화됨으로써 관계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 그들은 파트너를 공감할 때 자신이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Kashy, & Cook, 2006)을 활용하여 설명하면,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과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공감을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방효과로 볼 수 있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만족 간의 정적 관련성 즉 자기효과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주은, 2016; 조영주, 심은정, 2017)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Priem, Solomon, & Steuber, 2009; Rosen, Mooney, & Muise, 2017)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공감을 제공한 사람의 관계만족과는 큰 크기¹⁾의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공감을 제공받은 사람의 커플 관계만족의 관련성 즉 상대방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1)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1 이상은 작은 크기, .3 이상은 중간 크기, .5 이상은 큰 크기로 봄.

보고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공감을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만족과 관련을 보이기도 하였지만(이주열, 이영호, 2017; Rosen et al., 2017),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riem et al., 2009).

한편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은 실제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과는 달리, 파트너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공감의 정도를 말한다.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높을 때 즉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할 때 이해받고 돌봄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Davis, & Oathout, 1987; Reis, & Shaver, 1988).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과 지각자의 관계만족 간의 정적 관련성은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열, 이영호, 2017; 조영주, 심은정, 2017; Cramer, & Jowett, 2010)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Clark, Von Culin, Clark-Poner, & Lemay, 2017; Lemay et al., 2007)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과 공감을 제공한 파트너의 관계만족은 대체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박주은, 2016; 이주열, 이영호, 2017), 일부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Priem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파트너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한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커플의 공감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을 받고 이를 지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지각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지각자가 되는 것이다. 파트너의 공감에 대한 지각은 지각의 대상인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공감 지각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과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지각한 공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이 파트너를 공감하는 것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공감을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각의 정확성은 실제에 근거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공감 지각의 정확성은 A-B 관계에서 B가 A에게 제공한 공감과 이에 대한 A의 지각 간의 관계로 볼 수 있다(그림 1). 이때, B가 제공한 공감과 A가 제공받은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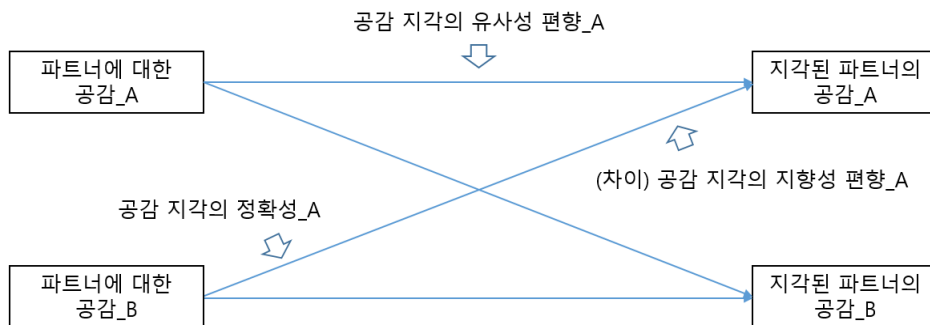


그림 1.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 유사성 편향과 정확성

지각한 공감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혼 커플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트너의 공감과 이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주은, 2016; 이주열, 이영호, 2017). 공감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Clark et al.(2017)은 파트너의 정서 경험에 대한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은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Overall, Fletcher와 Kenny(2012)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파트너의 배려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파트너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특성의 영향을 받아 편향되는 것을 말한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추론할 때 자기 자신을 준거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나타난다(Murray, Holmes, Bellavia, Griffin, & Dolderman, 2002).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A-B 관계에서 B에 대한 A의 공감과 B가 제공한 공감에 대한 A의 지각 간의 관계가 된다(그림 1). 선행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감이나 지지에 대한 틀을 활용하여 파트너의 공감을 판단하는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영주, 심은정, 2017; Lemay et al., 2007). Clark et al.(2017)은 커플의 정서 경험의 지각에서 투사로 인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미혼 커플과 부부 모두에게서 전반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주와 심은정(2017)의 연구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Kazmierczak(2015)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련성은

남녀 모두에게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실제에 비해서 지각하는 정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의미한다(West, & Kenny, 2011). 본 연구에서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A-B 관계에서 B가 A에게 제공했다고 보고한 공감에 비해서 A가 B에게서 받았다고 지각하는 공감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말한다. Fletcher와 Kerr(2010)는 메타분석에서 지각되는 특성에 따라서 긍정편향 혹은 부정편향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는데, 커플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부정편향이 일어나고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긍정편향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상호작용에 관한 특성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관계에 민감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편향이 일어난다고 추론하였다. 예를 들어, Overall et al.(2012)은 커플의 배려에 대한 지각의 연구에서 지향성 편향은 부정편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조영주(2017)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긍정편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들의 연구는 관계의 시작과 종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부정 편향을 보이는 커플은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이미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몇몇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격차(empathy gap)라는 개념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공감격차는 Loewenstein(1996)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배고픔이나 통증과 같은 개인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이 이를 평정하는 사람에 비해서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감 지

각의 지향성 편향은 A-B 커플 관계에서 공감을 지각하는 사람(A)을 기준으로 지각자가 파트너의 공감을 얼마나 편향되게 지각하는지를 말한다면, 공감격차는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B)을 기준으로 그가 공감을 지각하는 사람(A)에 비해서 얼마나 높게 혹은 낮게 자신의 공감을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A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B의 공감 격차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관계만족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과 이영호(2017)의 연구에서는 공감격차와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공감을 제공한 사람의 관계만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지각한 사람의 관계만족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 간의 관계는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더하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매개한다는 틀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기 효과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로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파트너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할 때 서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Priem et al.(2009)은 남편과 아내 모두 관계만족이 높을 수록 파트너에게 높은 수준의 지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파트너가 제공하는 지지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Lemay et

al.(2007)은 자기 자신의 욕구에 대한 반응성이 높을 때 파트너의 반응성을 높게 지각하고 이를 통해서 지각자의 관계만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주와 심은정(2017)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로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영주와 심은정(2017)의 연구 자료는 쌍자료가 아니고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관계만족 간의 상대방효과에서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이 높을 때 지각자가 이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함으로써 지각자의 관계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가 공감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각자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관계만족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Montoya, Horton과 Kirchner(2008)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실제 유사성 보다는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 관계만족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성교제 중인 미혼 커플이나 부부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과업 중심적으로 여성은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 되는데, 이로 인하여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공감과 관계만족 및 이들 간의 관련성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Thomas, & Fletcher, 2003). 사회화 과정 외에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각의 성차를 이해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 관점에 따르면,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권력의 열세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

를 갖는다고 본다(Caughlin, & Scott, 2010). 시대와 문화가 변화하고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도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Jackson, Miller, Oka, & Henry, 2014).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 중심적인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순현, 권정혜, 2015; 허재홍, 2014).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특성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남성 파트너의 자존감, 자기개방, 공감, 의사소통과 같은 특성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김미정, 조영주, 2017; 박영화, 고재홍, 2005; 이미영, 권정혜, 2016), 남성 중심적 경향을 보고하고도 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커플(A-B) 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 지각의 정확성,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공감 지각이 지향성 편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들 관계에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차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관련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가설1.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관계만족의 관계

1-1.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의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자기효과).

1-2. B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의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상대방효과).

가설2.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관계만족

2-1.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

2-2.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로 A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감 지각의 정확성 및 관계만족

3-1. B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공감 지각의 정확성).

3-2. B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로 A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관계만족

4-1.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은 B가 보고한 파트너에 대한 공감보다 낮을 것이다(공감 지각의 지향성 부정편향)

4-2. A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정적으로 높을수록 A의 관계만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1.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자료 수집 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커플을 대상으로 인구통

계학적 변인, 공감적 이해와 관계만족에 관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P01-201907-22-015)을 받은 후, 대학생 커뮤니티, 직장 커뮤니티,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 설문 URL 링크를 포함한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을 올려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가 미혼 커플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두 사람이 모두 설문에 참여해야 하므로 설문 참여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한 후에 설문문에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문 응답 시 각각 응답한 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다른 장소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차로 인한 관계 경험의 차이가 설문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두 사람의 설문 참여 간격이 2일을 넘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시작할 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비밀보장 등을 포함하는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읽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플임을 확인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와 파트너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보상으로 4천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성 커플 101쌍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적 검정력을 위한 표본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Ackerman, Donnellan과 Kashy (2011)가 제안한 기준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쌍자료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쌍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언변인 간 기대 상관과 종속변인 간 기대 상관이 .30에서 .50 사이이고 기대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각각 .30일 때, alpha 수준 .05에서 통계적 검정력 .80을 얻기 위해서는 88에서

113의 커플 표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본 연구에 활용된 커플 수는 필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	M (SD)
관계유형		
미혼커플	70 (69.3)	
부부	31 (30.7)	
전체	101 (100)	
직업_남		
대학생	39 (38.6)	
풀타임 직장인	50 (49.5)	
파트타임 직장인	3 (3.0)	
자영업자/사업가	4 (4.0)	
취업준비생	5 (5.0)	
전체	101 (100)	
직업_여		
대학생	50 (49.5)	
풀타임 직장인	28 (27.7)	
파트타임 직장인	8 (7.9)	
자영업자/사업가	2 (2.0)	
주부	7 (6.9)	
취업준비생	4 (4.0)	
기타	2 (2.0)	
전체	101 (100)	
나이_남		30.05 (9.53)
나이_여		28.04 (9.33)
연애/결혼기간(개월) [†]		92.94 (4.73)

주. N=101. [†] 연애/결혼기간(개월)은 여성과 남성이 보고한 연애/결혼 개월 수(기혼의 경우는 연애 기간과 결혼 기간 합산) 평균한 값

측정 도구

공감적 이해

Barrett-Lennard(1962)는 상담 장면에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rett-Lennard 관계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정방자(1985)가 이 척도의 하위척도인 공감적 이해를 번안하였다. 조영주와 심은정(2017)은 이를 커플 관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를 '파트너'로 수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공감적 이해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8개 문항은 역산하여 전체 16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주와 심은정(2017)의 방식대로 두 세트의 공감적 이해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하나는 파트너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였고, 다른 하나는 파트너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내 파트너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를 포함하며,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은 '내 파트너는 내 말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를 포함한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주와 심은정(2017)의 연구에서 각각 .77과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과 .87이었다.

관계만족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고, 이복동(200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불만족 하위요인 16 문항만을 사용하여 부정 문항을 역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우리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계에는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반적 관계 만족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101쌍의 커플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에 포함된 커플 수가 통계적 검정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 수인지를 살펴보았다. 사전분석으로 기술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대응표본 t -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연애/결혼 기간은 왜도와 첨도가 높고 분포의 정상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곱근 변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의 일부는 미혼 커플에게서 수집하였고 일부는 결혼한 부부에게서 수집하였는데, 주요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커플 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파트너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된 공감, 즉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Kenny et al, 2006)을 활용하였다. Kenny et al.(2006)은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쌍 자료를 사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그림 2에 제시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분석에서 관계 유형(미혼커플, 부부)과 연애/결혼 기간이 주요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각 변인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함으로써 관계유형과 연애/결혼 기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에서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에 이르는 경로와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에서 관계만족에 이르는 회귀계수를 곱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도 검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진실-편향 모형(Truth-Bias Model: West & Kenny, 2011)의 틀을 활용하였다. West와 Kenny(2011)는 판단과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하나의 틀로 살펴보는 진실-편향 모형을 제안하였다. 진실-편향 모형은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 자기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지, 파트너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지각하는지를 검정한다. 그들은 진실과 편향의 크기에 따라

때로는 보다 정확한 판단과 지각을 하고 때로는 보다 편향된 지각과 판단을 한다고 하였다. 진실-편향 모형은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포함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일종으로,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대한 지각이 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지각자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특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지각자 자신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는 지각의 편향으로, 상대방의 특성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진실 혹은 지각의 정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 대한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회귀계수로, 공감 지각의 정확성은 A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 대한 B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회귀계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공감 지각의 정확성은 직접 정확성에 더하여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 및 B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 간의 상관으로 인한 간접 공감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A-B 관계에서 B가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서 A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을 빼 값으로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 값을 산출하고,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포함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0.04에서 0.78로 2이하였으며, 첨도의 절댓값은 0.07에서 2.08로 7이하로 나

타나 표본의 정상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West, Finch, & Curran, 1995). 한편 연애/결혼기간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2.43과 5.88이었고, 연애/결혼 기간을 정상분포로 변환하기 위하여 제곱근 변환을 하였다. 변환 후 첨도는 1.30과 1.26이었고, 이후 분석에서는 연애/결혼기간의 변환값을 사용하였다.

미혼 커플과 부부 집단 간에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90$, $F = 1.74$, $p = .19$). 한편 개별 변인 중에서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서 미혼 커플과 부부가 차이를 보였는데($F(1,99) = 3.25$, $p < .05$) 미혼여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서 파트너의 공감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혼여성: $M = 4.13$, $SD = 0.61$; 기혼여성: $M = 3.74$, $SD = 0.84$). 다음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주요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100) = 1.99$, $p > .05$;

$t(100) = 1.58$, $p > .05$; $t(100) = 0.85$, $p > .05$).

표 2에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연애/결혼 기간은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과 부적 관련이 있었는데($r = -.25$, $p < .05$), 연애/결혼 기간이 길수록 여성은 파트너로부터의 공감을 낮게 지각하였다. 남성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파트너로부터의 공감도 높게 지각하였고($r = .72$, $p < .001$), 관계만족도 높게 지각하였다($r = .65$, $p < .001$). 또한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이 높을수록 관계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r = .78$, $p < .001$). 여성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과 관계만족을 높게 보고하였고($r = .64$, $p < .001$; $r = .72$, $p < .001$),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관계만족이 높았다($r = .77$, $p < .001$).

남성 변인과 여성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을수록 여성은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했으며($r = .46$, $p < .001$), 관계만족을 높게 보고하였다($r = .50$, $p < .001$). 또한 남성의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

표 2.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주요변인 간의 상관

	1	2	3	4	5	6	7	M	SD
1. 연애/결혼 기간 (변환값)	-							21.20	6.34
2.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02	-						4.17	0.63
3.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11	.72***	-					4.12	0.75
4. 관계만족_남	-.07	.65***	.78***	-				3.76	0.78
5.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11	.37***	.55***	.59***	-			4.03	0.59
6.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25*	.46***	.54***	.61***	.64***	-		4.01	0.71
7. 관계만족_여	-.16	.50***	.65***	.76***	.72***	.77***	-	3.71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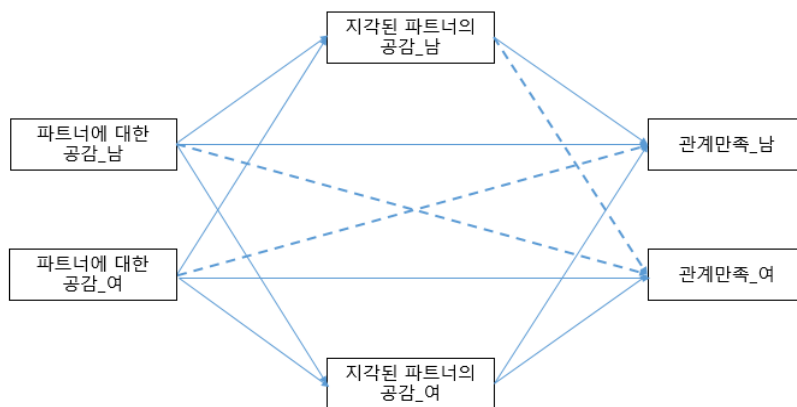
주. $N = 101$. * $p < .05$, ** $p < .01$, *** $p < .001$.

높을수록 여성 파트너의 관계만족이 높았다($r=.63, p<.001$). 한편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높을수록 남성은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했으며($r=.55, p<.001$), 관계만족을 높게 보고하였다($r=.59, p<.001$). 여성의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이 높을수록 남성 파트너의 관계만족이 높았다($r=.61, p<.001$). 이에 더하여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 간의 상관도는 유의하였고($r=.37, p<.001$),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상관도 유의하였으며($r=.54, p<.001$), 남성과 여성의 관계만족 간의 상관도 유의하였다($r=.76, p<.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의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는 각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를 포함하였고, 그림 2에서는 분석결과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관계유형과 연애/결혼 기간이 각 변인에 이르는 경로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그림 2와 표 3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남성의 자기효과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에 이르는 경로

는 유의하였고($\beta=.65, p<.001$), 이는 남성의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의함을 나타낸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beta=.18, p<.05$) 및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이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beta=.48, p<.001$)도 유의하였다. 여성의 자기효과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고($\beta=.56, p<.001$), 이는 여성의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유의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beta=.37, p<.001$) 및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이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beta=.45,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하였고($\beta=.29, p<.001$), 이는 여성의 공감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함을 보여준다.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남녀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상관을 통한 여성의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21(.37*.56; Sobel's z=3.41, p<.001)$ 이었다. 남성



주.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그림 2.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의 관계

표 3.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 간의 관계 모형에서 회귀계수

예측변인	준거변인	B	S.E.	β	지각의 정확성 및 편향
자기효과 (남 → 남)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71	.07	.65***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_남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관계만족_남	.21	.10	.18*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관계만족_남	.49	.10	.48***	
자기효과 (여 → 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62	.09	.56***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_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관계만족_여	.40	.08	.37***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관계만족_여	.44	.07	.45***	
상대방효과 (남 → 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30	.08	.29***	공감 지각의 정확성_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관계만족_여	.08	.08	.07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관계만족_여	.13	.08	.14	
상대방효과 (여 → 남)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42	.08	.36***	공감 지각의 정확성_남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관계만족_남	.20	.10	.16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관계만족_남	.20	.09	.19*	

주. N=101. * $p < .05$, ** $p < .01$, *** $p < .001$.

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나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이 여성 파트너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7, p > .05$; $\beta = .14, p > .05$). 여성이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는데($\beta = .36, p < .001$), 이는 남성의 공감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함을 의미한다.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남녀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상관을 통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24(.37 * .65; \text{Sobel's } z = 3.66, p < .001)$ 였다.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지 않았고($\beta = .16, p > .05$),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이 남성이 관계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였다($\beta = .19, p < .05$).

다음으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개별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전체효과 = $.55, p < .01$)와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전체효과 = $.67, p < .01$)는 둘 다 유의하였다. 또한,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

표 4. 관계만족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전체효과 및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

예언변인	준거변인	전체 효과	간접 효과	개별매개효과		
				매개변인	매개효과	Sobel's z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 관계만족_남	.55** (.45, .72)	.37** (.25, .53)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31	4.41***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05	1.91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 관계만족_여	.67** (.55, .82)	.31** (.22, .43)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05	1.55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25	6.16***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 관계만족_여	.30** (.19, .46)	.22** (.13, .35)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09	1.60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14	3.22**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 관계만족_남	.44** (.24, .58)	.28** (.18, .46)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17	3.58***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11	2.11*

주. N=101. * $p < .05$, ** $p < .01$, *** $p < .001$. () 안의 값은 بوت스트랩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

방효과도 유의하였고(전체효과=.30, $p < .01$),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도 유의하였다(전체효과=.44, $p < .01$).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간접효과는 남녀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녀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효과크기=.22~.37, $ps < .01$). 구체적으로,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는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효과크기=.31, Sobel's $z=4.41$, $p < .001$),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에서는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매개효과=.25, Sobel's $z=6.16$, $p < .001$).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는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매개효과=.14, Sobel's $z=3.22$, $p < .01$). 한편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

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매개효과=.17, Sobel's $z=3.58$, $p < .001$),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매개효과=.11, Sobel's $z=2.11$, $p < .05$).

가설 4에서는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나타나며,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남성 파트너가 지각한 공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성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t(100)=1.27$, $p > .05$). 한편 남성의 파트너에 대한 공감에 비해서 여성 파트너가 지각한 공감은 유의하게 낮았고, 여성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한 부정편향이 있었다($t(100)=-2.37$, $p < .05$).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관계만족 간의 관

표 5.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	M (SD)	t	관계만족과의 상관	
			관계만족_남	관계만족_여
공감지각의 지향성 편향_남: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남 - 파트너에 대한 공감_여	0.08 (0.65)	1.27	.37***	.02
공감지각의 지향성 편향_여: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_여 - 파트너에 대한 공감_남	-0.16 (0.70)	-2.37*	.07	.33**

주. N=101. * $p < .05$, ** $p < .01$, *** $p < .001$.

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은 남성의 관계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r = .37, p < .001$), 여성의 관계만족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 = .02, p > .05$). 마찬가지로 여성의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정적으로 클수록 여성의 관계만족이 높았고($r = .33, p < .01$), 남성의 관계만족과는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r = .07,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커플 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에서 공감 지각의 정확성,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나타나는지 검정하고,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성차와 관련된 결과도 각각의 가설검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첫째,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을 때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과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 모

두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지되었다. 즉, 파트너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만족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관계만족 간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주은, 2016; 조영주, 심은정, 2017; Busby, & Gardner, 2008; Priem et al., 2009; Rosen et al., 2017). 파트너를 공감할 때 파트너를 더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며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1-2에서는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이 높을수록 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관계만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가설도 지지되었다. 남녀 모두 파트너가 높은 수준의 공감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을 때 관계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이주열과 이영호(2017)의 연구 결과와 Rosen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파트너에게 공감을 제공할 때 파트너가 이를 지각하고 지지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관계 만족감을 높게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자기효과는 큰 크기, 상대방효과는 중간 크기로, 파트너에게 제공하

는 공감이 파트너에게 받는 공감 보다는 자신의 관계만족과 관련이 더 높았다. 이는 성인 애착이 남녀 커플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김미정, 조영주 2017)나 자기분화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컸다는 선행연구(김아영, 조영주, 2018)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에 비해서 더 큰 것은 개인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과 관련된 공감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파트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호작용 방식이 커플 관계만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상호작용 양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관계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파트너에게 공감을 많이 제공할수록 공감을 제공한 사람도 자신이 공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관계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1에서는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의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지지되었다. 지각자는 파트너를 공감할수록 파트너가 자신을 공감한다고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감 지각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준거로 하여 다른 사람을 지각하는 투사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자신의 심리적 과정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조영주, 심은정, 2017; Clark et al., 2017)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효과크기는 큰 크기로 나

타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에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 선행연구(Priem et al., 2009)를 지지하며,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에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조영주(2017)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의 성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관계지향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남성이 우위에 있는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2-2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면 파트너의 공감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 매개효과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파트너에게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이를 매개로 지각된 파트너의 지지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Priem et al.(2009)의 연구 결과나 자신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반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만족이 높다고 보고한 Lemay et al.(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가설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큰 크기로 유의했는데, 남성의 경우는 자기효과의 56%는 남성이 지각한 여성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간접효과였고, 여성의 경우는 자기효과의 37%가 여성이 지각한 남성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간접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투사해서 파트너의 공감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 때 관계를 안정적으로 느끼고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혹은 파트너에게 높

은 수준의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을 잘 알아차리고 이로 인하여 관계만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상호작용 양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관계만족이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에 더하여, 자신의 상호작용 양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파트너의 상호작용양식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만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파트너가 공감을 많이 제공할수록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은 공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고, 이를 통해서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1에서는 공감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지지되었다.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이 높을 때 지각자가 이를 높게 지각하고,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이 낮을 때에는 지각자가 이를 낮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접 공감 지각의 정확성은 중간 크기로, 파트너의 공감을 정확하게 지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의 상관을 통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도 유의하였는데, 파트너에 대한 공감 간의 관련성은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통하여 공감 지각의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West, & Kenny, 2011). 직접 공감 지각의 정확성과 간접 공감 지각의 정확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효과 크기는 공감 지각의 유사성 편향 크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공감을 지각하는데 있어서도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두 사람의 요인이 둘 다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가설 3-2에서는 파트너가 높은 수준의 공감을 제공할 때 이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관계만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완전매개로 지지되었다. 남성의 공감이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효과는 전체 상대방효과와의 47%였고, 여성 파트너의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남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을 매개한 효과는 전체 상대방효과와의 39%였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공감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전체 상대방효과와의 25%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여성이 공감을 많이 할수록 여성은 남성 파트너가 제공하는 공감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를 통해서 남성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의 긍정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시 상대방의 긍정정서를 유발하고 이러한 순환 속에서 관계가 안정되고 관계만족을 높아진다고 한 연구자들(전희정, 양재원, 2019; Caughlin, & Huston, 2002)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가설 2-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성이 공감의 지각에서 남성이 다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제공한 공감을 파트너가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성의 관계만족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남성의 관계만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이 제공하는 공감이 남성이 지각한 공감을 매개로 여성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효과 크기는 반대 성에서 매개효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위의 해석에서 성차가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성이 제공했다고 보고하는 공감에 비해서 여성 파트너는 공감을 더 낮은 수준으로 지각한 한편 남녀 모두 파트너가 공감을 제공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을 받은 것으로 지각할 때 관계 만족이 높았다. 가설 4-1에서는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감의 지향성 편향은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의 경우는 부정편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나타는 부정편향은 남성 파트너가 보고하는 공감에 비해서 여성이 이를 낮은 수준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려의 지각에서 부정 편향이 보고되었던 Overall et al.(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파트너의 공감을 보다 보수적으로 지각하면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한편 남성의 경우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Fletcher와 Kerr(2010)가 상호작용 특질에서 부정 편향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차는 상대적으로 관계에 민감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서 관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로 인한 부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서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공감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고, 파트너의 공감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설4-2에서는 공감 지각의 지향성 편향이 지각자의 관계만족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지지되었다. 남녀 파트너의 공감을 파트너가 보고

한 것보다 더 높게 지각할수록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격차에 관한 이주열과 이영호(201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파트너의 공감을 파트너가 보고하는 것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관계만족이 더 높았다. 이는 관계에 대해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파트너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한 시점에서의 관계만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학문적 의의 및 상담 적용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고, 이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기술하겠다. 첫째, 커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커플이 모두 설문에 참여할 것인지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커플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한 후에 한 사람만 참여한 커플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사람이 상의하여 설문에 응답한 커플의 공감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만족이 그렇지 않은 커플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커플에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커플상담을 신청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가 관계 갈등이 있는 커플에게도 적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상담 실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미혼커플과 부부를 모두 포함하고 다양한 연령과 교체 기간을 가진 참가자를 포함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유형(미혼커플, 부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 유형과 연애/결혼 기간이 주요변인에 이르는 경로를 포함함으로써 관계유형과 연애/결혼 기간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가한 전체 101쌍의 커플 중 미혼 커플이 69.3%, 부부가 30.7%로 미혼커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상당수가 20대와 30대라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층화 표집을 활용하여 이를 관계 유형 및 연령별로 충분한 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문 자료는 한 시점에서 수집되었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 파트너에 대한 공감이 파트너의 공감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파트너의 공감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파트너에게 공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감을 제공하면서 관계에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관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공감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커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분석하는 사례연구(Marmarosh, 2014)나 관찰 자료를 포함하는 연구(Leuchtmann et al., 2019a)를 통하여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에 대한 Leuchtmann et al.(2019b)의 중단연구와 같이,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을 측정하기 전과 후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계만족을 측정하는 중단연구를 활용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감은 기질적인 요소와 상태적인 요

소를 포함하며,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고(박성희, 2017, Barrett-Lennard, 1981, Davis, 1983), 공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전희정, 양재원, 2019). 커플의 공감지각 및 공감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도 공감을 세분화하여 연구함으로써 파트너에 대한 공감,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 및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커플이 주고받는 공감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적 공감과 구분되는 커플 내에서의 공감을 경험적으로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커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모두 연구에 포함하여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연구함으로써 공감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보다 명료화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커플의 공감을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관계를 지각의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의 정확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공감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제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제공하는가 뿐만 아니라, 공감을 제공받는 사람이 공감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도 만족스러운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파트너에게 공감을 많이 할수록 파트너에게서도 공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으로써 관계만족이 증진되었는데, 이는 지각자 자신의 관계만족을 위해서라도 파트너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파트너를

공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가 파트너의 욕구,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파트너의 관계만족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계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서중심치료, 인본주의 치료,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모, 2011; 김혜숙, 이은정, 2011; 박남숙, 연문희, 2002; 정여주, 2012; Johnson, 2004).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은 자신의 공감이나 파트너에 공감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고, 이는 파트너의 공감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관계만족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파트너가 공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요약, 재진술하고 그 의도를 생각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공감 지각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Johnson, 2004). Leuchtmann et al.(2019a)은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진술은 특히 남성의 인지 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의 지향성 부정 편향은 남성이 파트너를 공감하지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커플 상담에서 상담자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공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김혜숙, 이은정, 2011), 여성은 공감이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도울 수 있다. Gottman과 Silver(2002)도 부부관계에서 대개는 보다 관계중심적인 아내가 의사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파트너의 공감을 긍정 편향하여 지각할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파트너가 제공한 공감을 유사한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보다는 파트너의 공감에 대한 '환상'을 가질수록 관계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담

자의 긍정적 작업동맹이 잘 형성된 이후에는 파트너에 대한 환상을 명료화하고 직면하는 통찰치료를 통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정방자, 199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긍정 편향이 파트너의 관계만족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의 초기에 상담자는 긍정편향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직면시키기 보다는 긍정편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지지적 상담(정방자, 1998)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미정,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성인애착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63-288.
- 김아영, 조영주 (2018). 자기분화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건설적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4), 567-588.
- 김정모 (2011).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27-45.
- 김혜숙, 이은정 (2011).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PREPARE 도구를 기초로. 상담학연구, 12(4), 1193-1210.
- 남순현, 권정혜 (2015).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 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온·오프라인 교류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53-374.
- 박남숙, 연문희 (2002).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3(2), 337-364.
- 박성희 (2017).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주은 (2016). 연인 간 성차에 따른 공감 격차가 공감정확도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권정혜 (2016).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신혼부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4), 529-55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열, 이영호 (2017). 커플 관계에서 공감: 이자간 공감 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739-766.
- 전희정, 양재원 (2019). 인지 및 정서적 공감과 연인의 관계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465-483.
- 정방자 (1985).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방자 (1998). 정신역동적 상담. 서울: 학지사
- 정여주 (2012). 대학생 연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상담학연구, 13(1), 169-191.
- 조영주 (2017). 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417-443.
- 조영주, 심은정 (2017).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파트너에 대한 공감과 지각된 파트너의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179-202.
-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 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허재홍 (2014). 눈치가 안녕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3), 1067-1084.
- Ackerman, R. A., Donnellan, M. B., & Kashy, D. A. (2011). Working with dyadic data in studies of emerging adulthood: Specific recommendations, general advices and practical tips. In F. D. Fincham & M. Cui (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pp. 67-97).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ett-Lennard, G. T. (1962).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76(43), 1-36.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usby, D. M., & Gardner, B. C. (2008). How do I analyze thee? Let me count the ways: Considering empathy in couple relationships using self and partner ratings. *Family Process*, 47(2), 229-242.
- Caughlin, J. P., & Scott, A. M. (2010). Toward a communication theory of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interac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ew Directions in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Research* (pp. 180-200). SAGE Publications Inc.
- Caughlin, J. P., & Huston, T. L. (2002).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emand/withdraw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9(1), 95-119.
- Crenshaw, A. O., Leo, K., & Baucom, R. W. (2019). The effect of stress on empathic accuracy in romantic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3(3), 327-337.
- Clark, M. S., Von Culin, K. R., Clark-Polner, E., & Lemay, E. P. (2017). Accuracy and projection in perceptions of partners' recent emotional experiences: Both mind matter. *Emotion*, 17(2), 196-207.
- Cohen, L.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Cramer, D., & Jowett, S. (2010). Perceived empathy, accurate empath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3), 327-349
- David, P. (2015). Wedding the Gottman and Johnson approaches into an integrated model of couple therap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3(4), 336-34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97-410.
- Fletcher, G. J. O., & Kerr, P. S. G. (2010). Through the eyes of love: Reality and illu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627-658.
- Gottman, J. M., & Silver, N.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 (원전은 1999에 출판)
- Greenberg, L. S., & Johnson, S. M. (1988). *Emotionally focused therapy for couple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Jackson, J. B., Miller, R. B., Oka, M., & Henry, R.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1), 105-126.
- Johnson, S. M. (2004). *The practice of emotionally focused marital therapy: Creating connections*. New York, NY: Brunner/ Mazel.
- Kazmierczak, M. (2015). Couple empathy-the mediator of attachment styles for partners adjusting to parenthood.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33(1), 15-27.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may, E. P. Jr., Clark, S., & Feeney, B. C. (2007). Projection of responsiveness to needs and construction of satisfying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34-853.
- Leuchtman, L., Horn, A. B., Randall, A. K., Kuhn, R., & Bodenmann, G. (2019a). A process-oriented analysis of the three-phase method: A therapeutic couple intervention

- strengthening dyadic coping.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7(4), 251-275.
- Leuchtman, L., Milek, K., Nussbeck, F. W., Backes, S., Martin M., Zemp, M., Bradstätter, V., & Bodenmann, G. (2019b). Temporal dynamics of couples' communication behaviors in conflict discuss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9), 2937-2960.
- Loewenstein, G. (1996). Out of control: Visceral influences on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5(3), 272-292.
- Long, E. C., & Andrews, D. W.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131.
- Marmaosh, C. L. (2014). Fostering new relational experience: Clinical process in couple psychotherapy. *Psychotherapy*, 51(1), 1-6.
- Montoya, R. M., Horton, R. S., & Kirchner, J. (2008). Is actual similarity necessary for attraction? A meta-analysis of actual and perceived simila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6), 889-922.
- Murray, S. L., Holmes, J. G., Bellavia, G., Griffin, D. W., & Dolderman, D. (2002). Kindred spirits? The benefits of egocentrism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4), 563-581.
- Overall, N. C., Fletcher, G. J. O., & Kenny, D. A. (2012). When bias and insecurity promote accuracy: Mean-level bias and tracking accuracy in couples' conflict discu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42-655.
- Péloquin, K., & Lafontaine, M.-F. (2010). Measuring empathy in couple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for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2(2), 146-157.
- Priem, J. S., Solomon, D. H., & Steuber, K. R. (2009). Accuracy and bias in perceptions of emotionally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arriage. *Personal Relationships*, 16(4), 531-552.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Duck, D. F. Hay, S. E. Hobfoll, W. Ickes, & B. M. Montgomery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 367-389). John Wiley & Sons.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en, N. O., Mooney, K., & Muise, A. (2017). Dyadic empathy predicts sexual and relationship well-being in couples transitioning to parenthood.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6(6), 1-17.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4), 813-823.
- Thomas, G., & Fletcher, G. J. O. (2003). Mind-reading accuracy in intimate relationships: Assessing the roles of the relationship, the target, and the ju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6), 1079-1094.
- Wei, M., Lano, K. Y.-H., Ku, T.-Y., & Shatter, P. A. (2011). Attachment, self-compassion, em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and community adults. *Journal*

- of Personality*, 79(1), 198-22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est, T. V., & Kenny, D. A. (2011). The truth and bias model of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18(2), 357-378.

원 고 접 수 일 : 2020. 03.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6. 15

게 재 결 정 일 : 2020. 07. 10

Empathy toward Partner, Perceived Empathy from Partner, and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mpathy toward a partner and perceived empathy from a partner on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explored perceptual accuracy and bias in perceived empathy from a partner. In addition, sex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were explored.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01 dating and married couples, and were analyzed utilizing correlation analyses, path analyses, the Sobel test,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ctor effects and partner effects of empathy toward partner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empathy was also significant, as was perceptual accuracy in perceiving empathy. In regard to sex, directional bias in perceiving empathy was negatively significant for women. Finally, directional bias in perceiving empathy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ceiver's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Empathy toward Partner, Perceived Partner's Empathy, Couple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ptual Accuracy, Perceptual Bias, Sex Difference*